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은모*, 강수미**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e-mail:emsung@anu.ac.kr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Career Design Competency in Higher Education

Eunmo Sung, Sumi Ka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의 요인이 대학생의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민첩성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진로설계역량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회귀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의 하위 요인에서 도전정신, 학습책임감, 지적호기심, 변화수용성은 진로설계역량과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민첩성의 경험성찰, 체계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진로설계역량 하위 요인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민첩성이 대학생의 진로설계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설계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민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이나 진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정보의 융합으로 혁신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대대적인 일자리 구조 변화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기술진보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만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많을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만 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과는 달리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생들에서 대학생의 학습성취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과정의 역할까지 중요한 활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하며, 성숙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역량을 키워가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박주연, 2019).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적 욕구, 흥미, 적성,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과 준비행동 등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유능성을 향상시키고 진로결정을 한 후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해 나가도록 돕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일 수 있다(김동원, 2013).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는 진로준비과정은 신중한 자세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시기의 진로준비는 미래 지향적 사고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한다. 직업에 의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므로 대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진로준비과정이다(이효선, 2019). 진로준비 과정은 진로를 단순히 탐색하고 향후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로를 위한 준비과정과 함께 어우러지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학습민첩성에서 잘 나타난다.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이효선, 2020)이나 진로탐색(서광열, 2019), 진로준비행동(이효선, 201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이 대학생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전정신, 학습책임감, 경험성찰, 지적호기심, 체계적 사고, 변화수용성,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는 학습민첩성이 대학생의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학습민첩성과 관련하여 진로설계역량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우리나라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000명이었다. 대학생의 표집은 지역별 대학생의 비율을 할당하여 목표표집방식에 의거하여 1,000을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9(SD=2.44)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99명, 여성이 501명있고, 학년별로는 1학년 339명(33.9%), 2학년 321(32.1%)명, 3학년 196(19.6%)명, 그리고 4학년 144(14.4%)명이었다.

2.2 연구도구

이 연구에 활용된 도구는 학습민첩성역량 측정도구 진로설계역량 측정도구이다. 학습민첩성역량 측정도구는 성은모와 동료들[14]이 개발한 문항을 중심으로 29문항이 활용되었다. 이때 학습민첩성의 요인은 Sung (2021)[15]에서 도출된 개념을 활용하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민첩성은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전정신(8문항), 학습책임감(4문항), 경험성찰(4문항), 지적호기심(4문항), 체계적사고(4문항), 변화수용성(3문항), 논리적사고(2문항) 등 총 29문항이었다. 학습민첩성 측정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90$ 으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진로설계역량 측정도구는 진성희와 성은모[13]가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진로설계역량은 자기탐색(4문항), 직업탐색(4문항), 직업가치관(3문항), 진로준비(4문항) 등과 같이 4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문항은 총 15문항을 구성되었다. 진로설계역량 측정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41$ 으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3 자료 분석 절차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우선, 각 요인별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민첩성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설계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진로설계역량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진로설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진로설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학습민첩성 전체	2.94	0.32
도전정신	2.91	0.44
학습책임감	2.90	0.46
경험성찰	2.92	0.45
지적호기심	3.11	0.46
체계적사고	2.82	0.53
변화수용성	2.95	0.48
논리적사고	2.98	0.49
진로설계역량 전체	3.00	0.37
자기탐색	3.04	0.45
직업탐색	2.96	0.51
직업가치관	3.02	0.50
진로준비	2.99	0.48

<표 1>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전체 평균은 2.94(SD=.32)이었으며, 하위역량의 평균 범위는 2.91(SD=.44, 도전정신)~3.11(SD=.46, 지적호기심)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역량 전체 평균은 3.00(SD=.37)이었으며, 하위역량의 평균 범위는 2.96(SD=.51, 직업탐색)~3.04(SD=.45, 자기탐색)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진로설계역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민첩성 하위역량의 상관계수는 $r=.176\sim.5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진로설계역량 하위역량의 상관계수는 $r=.378\sim.58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과 진로설계역량의 하위요인간 상관계수 $r=.135\sim.45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일회귀분석과 하위역량요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R^2=.311$, adj. $R^2=.310$, $F=449.795$, $p<.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beta=.557$, $t=21.20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의 하위역량 요인이 진로설계의 하위역량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학습민첩성의 하위역량요인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R^2=.346$, adj. $R^2=.341$, $F=73.929$, $p<.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진로설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은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하위역량 요인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Beta		
도전정신	.179	.209	5.839	.000
학습책임감	.140	.173	5.203	.000
경험성찰	.069	.083	2.501	.013
지적호기심	.137	.170	5.475	.000
체제적사고	-.041	-.059	-1.948	.052
변화수용성	.111	.141	4.489	.000
논리적사고	.051	.068	2.485	.013

<표 2>에 의하면, 도전정신, 지적호기심, 학습책임감, 변화수용성, 경험성찰, 논리적 사고가 정적으로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체제적사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설계역량의 하위역량별로 학습민첩성 하위역량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역량요인이 자기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R^2=.199$, adj. $R^2=.193$, $F=34.730$, $p<.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진로설계역량의 자기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은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하위역량 요인이 진로설계역량의 자기탐색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Beta		
도전정신	.108	.105	2.643	.008
학습책임감	.050	.051	1.389	.165
경험성찰	.046	.046	1.241	.215
지적호기심	.188	.192	5.613	.000
체제적사고	-.007	-.009	-.264	.792
변화수용성	.162	.170	4.888	.000
논리적사고	.051	.056	1.854	.064

<표 3>에 의하면, 자기탐색에는 지적호기심, 변화수용성, 그리고 도전정신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역량요인이 직업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R^2=.229$, adj. $R^2=.223$, $F=41.528$, $p<.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진로설계역량의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은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하위역량 요인이 진로설계역량의 직업탐색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	--------	-------	---	------

	B	Beta		
도전정신	.199	.172	4.418	.000
학습책임감	.235	.215	5.947	.000
경험성찰	.070	.063	1.740	.082
지적호기심	.095	.087	2.594	.010
체제적사고	-.060	-.063	-1.930	.054
변화수용성	.106	.100	2.924	.004
논리적사고	.040	.039	1.330	.184

<표 4>에 의하면, 직업탐색에는 학습책임감, 도전정신, 변화수용성, 그리고 지적호기심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험성찰, 체제적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역량요인이 직업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R^2=.145$, adj. $R^2=.139$, $F=23.757$, $p<.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진로설계역량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은 <표 5>와 같다.

<표 5>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하위역량 요인이 진로설계역량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Beta		
도전정신	.149	.132	3.211	.001
학습책임감	.102	.095	2.505	.012
경험성찰	.042	.038	1.007	.314
지적호기심	.172	.160	4.530	.000
체제적사고	-.057	-.062	-1.787	.074
변화수용성	.088	.085	2.357	.019
논리적사고	.048	.048	1.540	.124

<표 5>에 의하면, 직업가치관에는 지적호기심, 도전정신, 학습책임감, 도전정신, 그리고 변화수용성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험성찰, 체제적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역량요인이 직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R^2=.274$, adj. $R^2=.269$, $F=52.815$, $p<.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진로설계역량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은 <표 6>과 같다.

<표 6>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하위역량 요인이 진로설계역량의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Beta		
도전정신	.252	.231	6.122	.000
학습책임감	.163	.159	4.534	.000
경험성찰	.110	.105	2.996	.003
지적호기심	.100	.097	2.983	.003
체제적사고	-.044	-.049	-1.555	.120
변화수용성	.081	.081	2.457	.014
논리적사고	.065	.067	2.330	.020

<표 6>에 의하면, 진로준비에는 도전정신, 학습책임감, 경험성찰, 지적호기심, 변화수용성, 그리고 논리적사고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제적사고는 영

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민첩성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은 진로설계역량과 유의미한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민첩성의 도전정신, 학습책임감, 지적호기심, 변화수용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중 경험성찰과 체계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대학생의 진로설계 하위요인들과 차이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민첩성의 경험성찰요인에서 진로준비요인과 체계적 사고요인에서 직업탐색요인, 논리적 사고에서 진로준비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민첩성은 대학생의 진로설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대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욕구, 적성, 흥미 등 구체적인 직업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로 이어지는 진로설계역량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민첩성이 요인이 진로설계역량과의 영향관계가 입증된 만큼 다양한 학습자 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등)에 따른 연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민첩성 요인들이 학습자 변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관계를 이용하여 학습자 변인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맞춤형 제시를 통해 학습자의 진로설계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진로설계와 관련하여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선택과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하혜숙, 1999),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수준을 감소시키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김수란, 정미경, 2014), 전공과 관련하여 저학년의 시점에서 진로탐색과 진로 준비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서광열, 2019)를 볼 때 대학시기의 진로설계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과만족도는 전공과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요구, 적성, 흥미 등의 탐색을 통해 진로에 대한 목표를 계획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련된 진로분야를 소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진로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함께 진로분야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진로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실무와 관련된 인턴십, 관련분야 견학, 멘토링, 코칭 등의 현장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을 위한 각 전공별 전문상담 프로

그램을 제공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박주연 (2019).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교육과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2] 김동원 (2013). 성격 특성과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광주대학교.
- [3] 이효선 (2019).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도전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지.10(1), 197-204.
- [4] 이효선 (2020).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을 매개로 다양성수용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지. 11(4), 195-201.
- [5] 이효선 (2021).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성수용도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지. 12(3), 273-280.
- [6] 서광열 (2019). 대학생의 진로탐색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9(4), 95-114.
- [7] 김수란, 정미경 (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 [8] 임창현, 위영은, 이효선 (2017).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인적자원개발학회지. 19(2), 81-108.
- [9]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2판>. 학지사.
- [10] 김봉환 외 (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학지사.
- [11] 김지영 (2015).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직업교육연구 저널. 34(2). 75-108.
- [12] 성은모, 진성희 (2019).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수준에 따른 행동특성 분석. 교육기술저널. 35(4). 1005-1033.
- [13] 진성희, 성은모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30(1), 67-90
- [14]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김근희 (2014). 청소년 역량 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E. M. Sung (2021). Seven Facets of Learning Agility in Higher Education for Future Society.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Educational Technology. 22(2).